

우리들의 리듬을 찾아서

전시 감상
참여활동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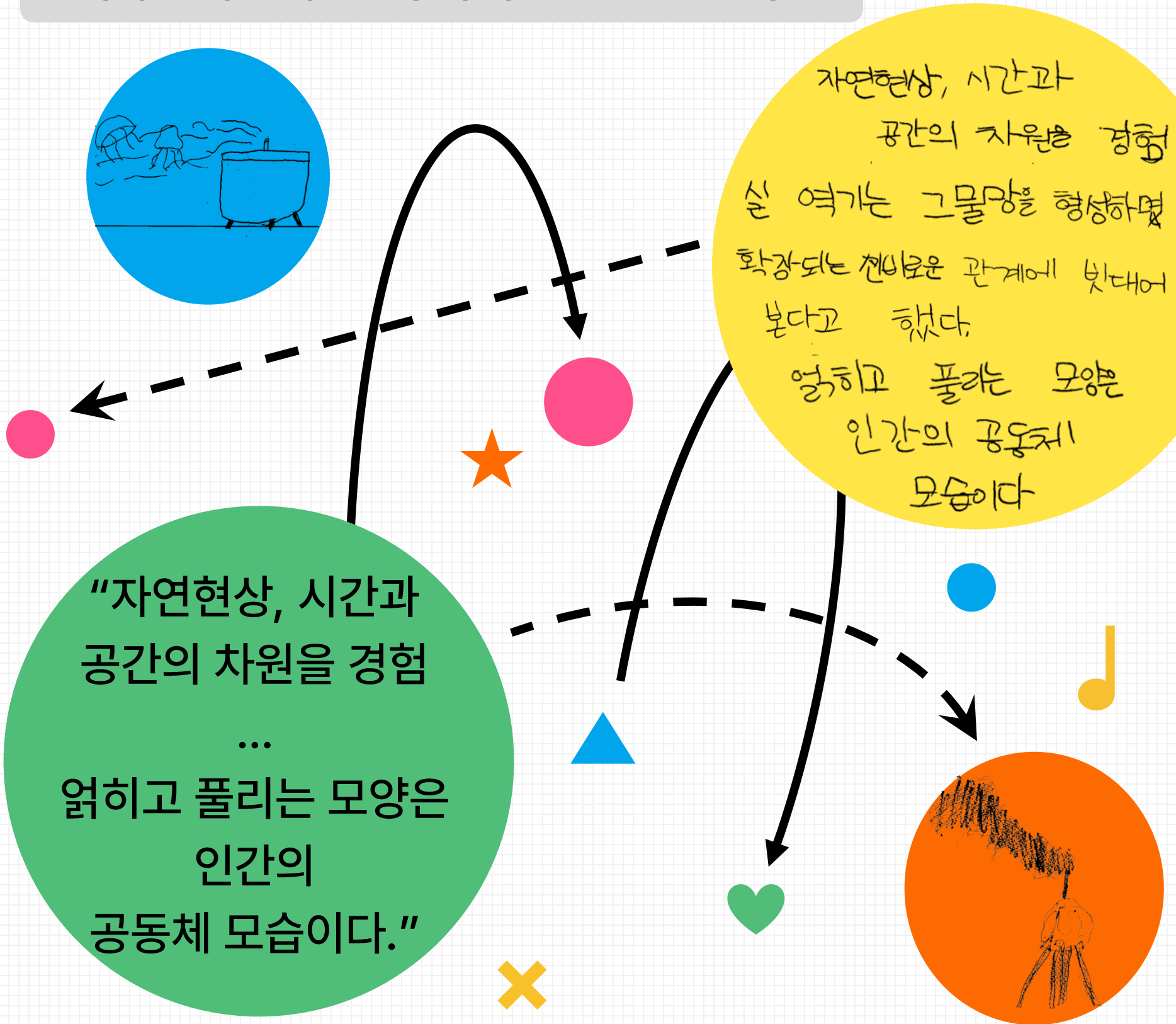
여다함 <향로>

Q. 작가는 왜 뜨개질을 통해 작품을 표현했을까요?



여다함 <향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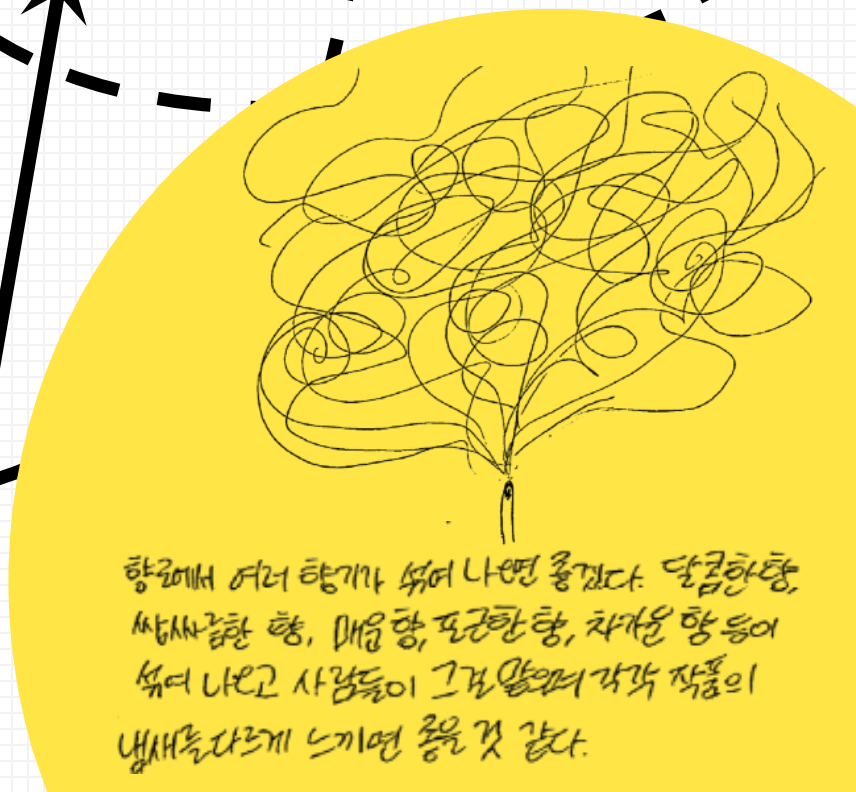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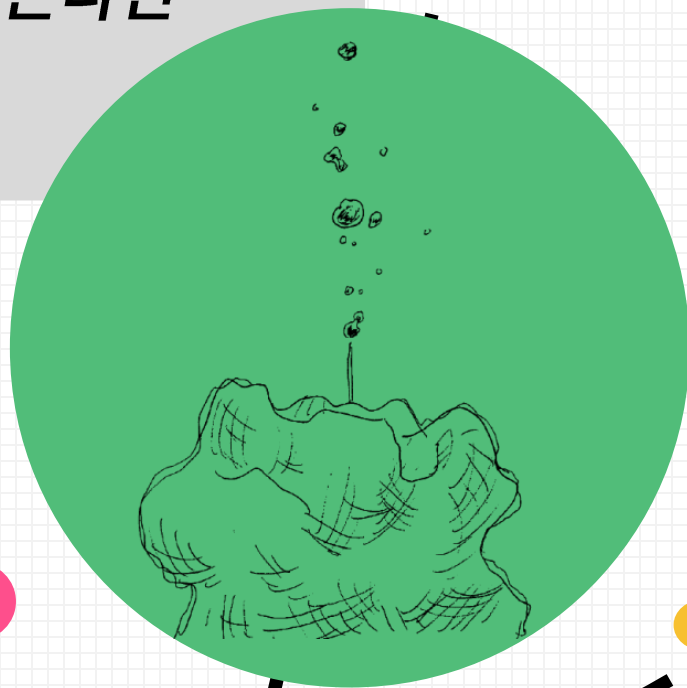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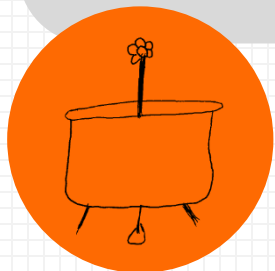
Q. 작가는 왜 뜨개질을 통해 작품을 표현했을까요?



여다함 <향로>



Q. 이 작품과 어울리는 향이나 냄새를 제안해 보고,
향로에서 연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온다면
어떨지 그림으로 함께 표현해 보세요.



"향로에서 여러 향기가
섞여 나오면 좋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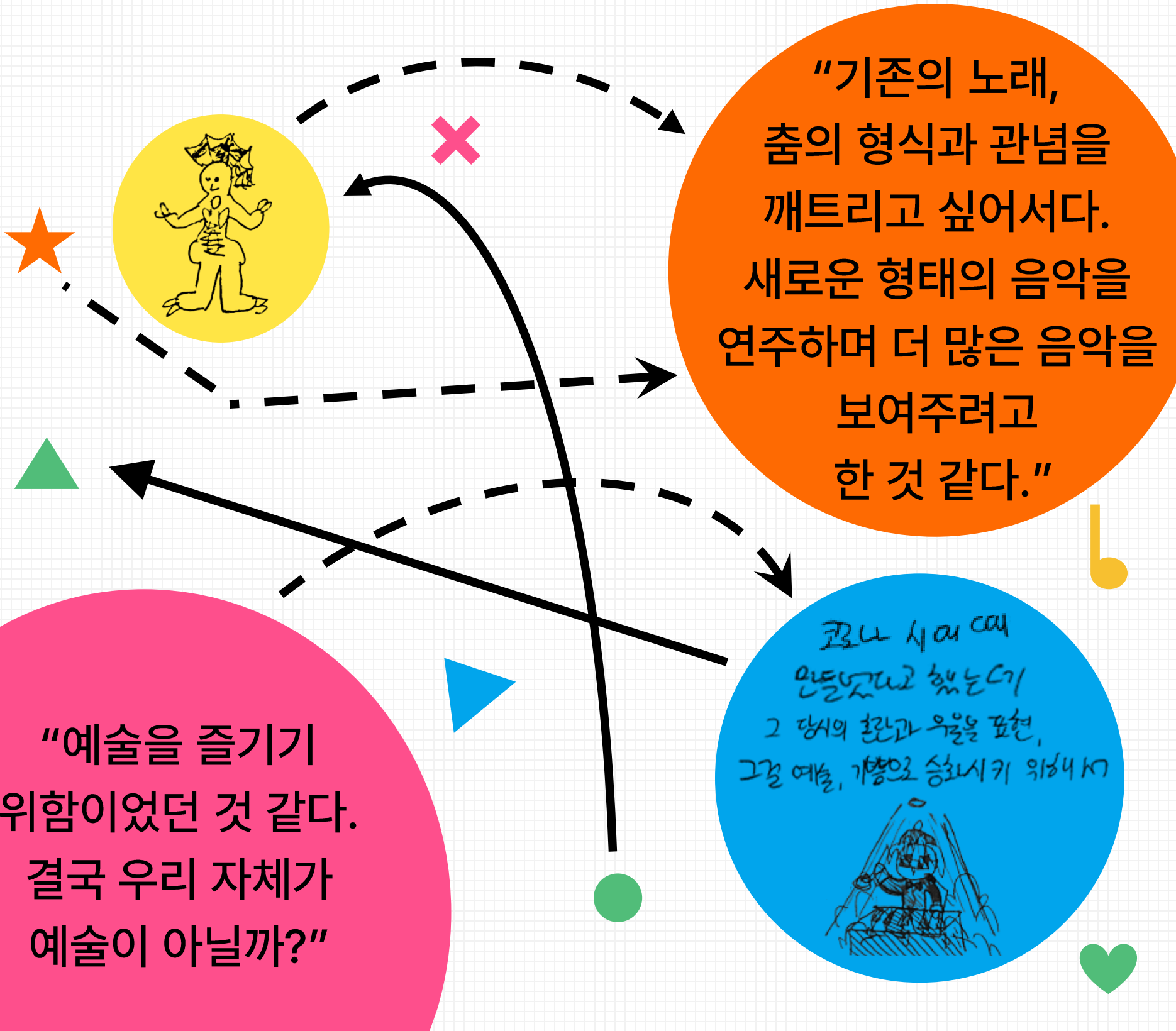
...

사람들이 그걸 맡으며
각각 작품의 향을
다르게 느끼면 좋을 것
같다"

향로에서 여러 향기가 섞여 나오면 좋겠다. 달콤한향,
쌩쌩글썩한 향, 매운향, 포근한향, 차가운 향등이
섞여나고 사람들이 그걸 맡으며 각각 작품의
냄새를 다르게 느끼면 좋을 것 같다.

!미디어그룹페 비트닉 <4x4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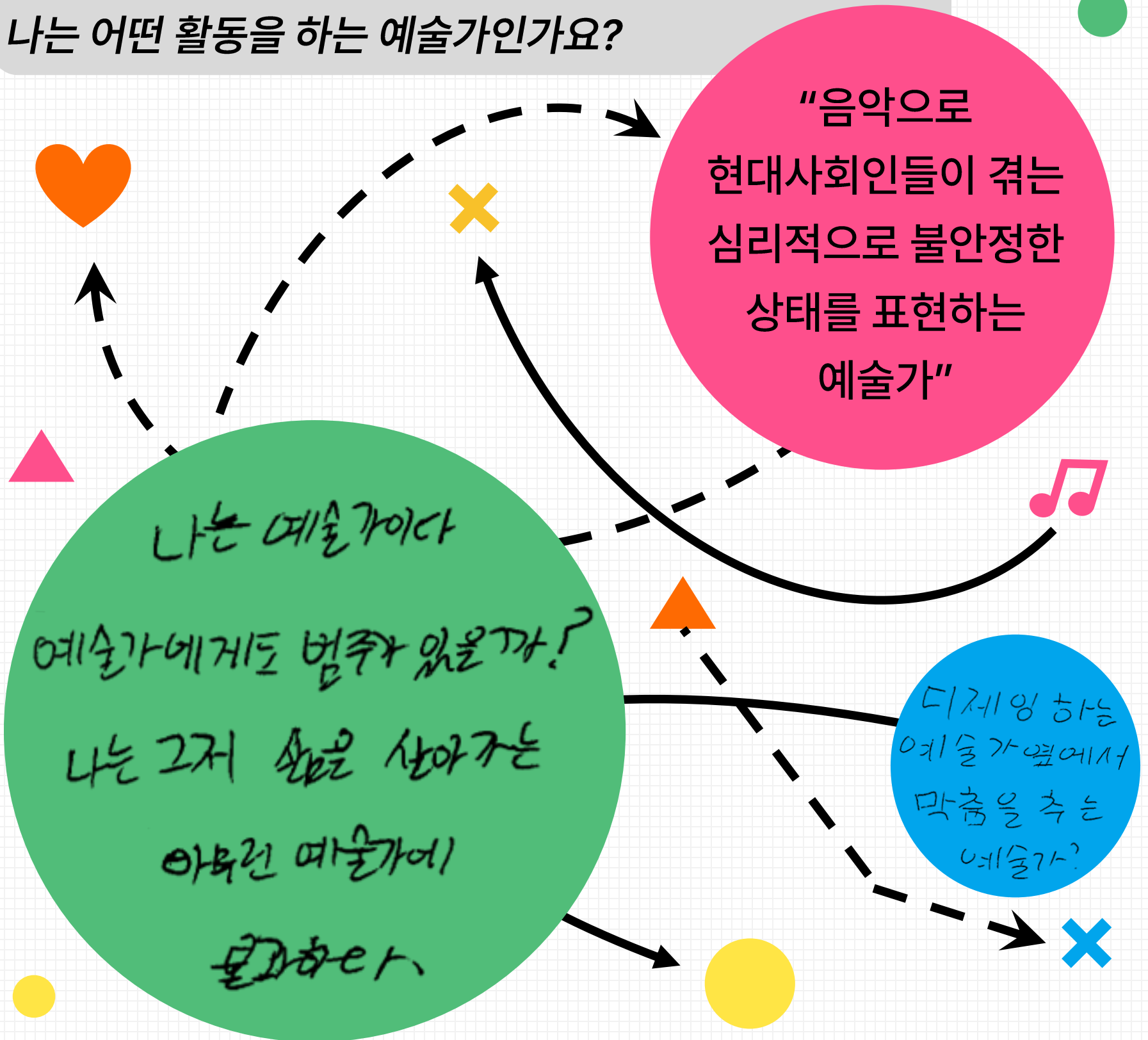
Q. 작가는 이런 활동을 왜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을까요?



!미디어그룹 비트닉 <4x4>

Q. 여러분이 영상 속에 나오는 예술가라고 생각해 보세요.

나는 어떤 활동을 하는 예술가인가요?



!미디어그룹페 비트닉 <4x4>

Q.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그리고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?



마야 민더 <그린 오픈 푸드 에볼루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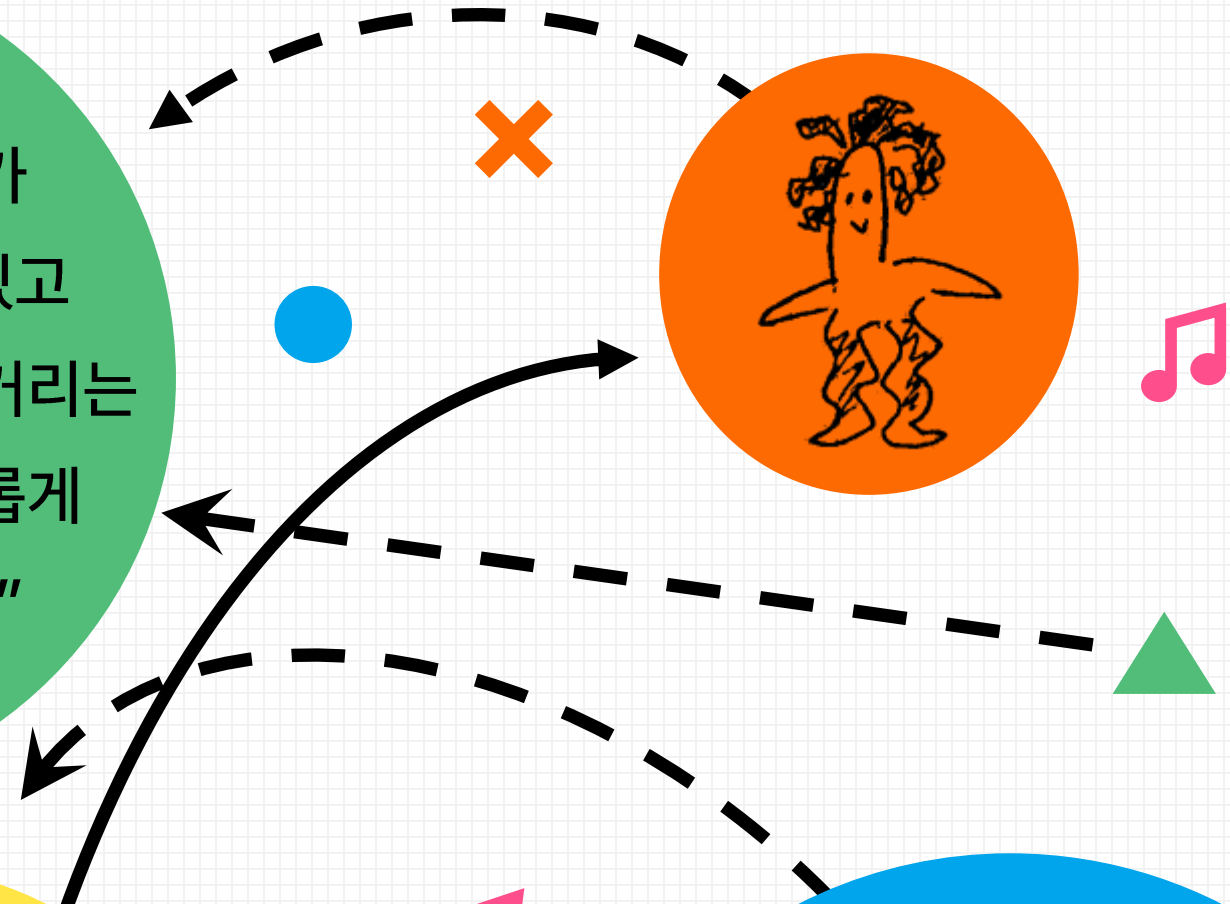
Q. 작가는 왜 미역이라는 재료로 작품을 만들었을까요?



"평소에 많이 접하지 못한 식재료가 새롭게 와 닿았을 수 있고 미역이 바닷속에서 흐물거리는 모습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."

자유롭게 부유하는 미역을 통해 우리의 삶을 표현하려 한 것 같다.

미역이라는 생소한 재료에 관심을 가져 미역에 대해 공부하고, 미역의 성질이 인간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품에 투영한 것 같다.



마야 민더 <그린 오픈 푸드 에볼루션>

Q. 작가가 제시한 '미역'이라는 소재를 섭취해서 진화한 광합성 인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



인간이 스스로 광합성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햇빛으로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는 율이 증가할 것이다.

피부표면에서 푸르푸른한 생물이거나 식물들이 피어오르고, 인간의 햇빛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것



마야 민더 <그린 오픈 푸드 에볼루션>

Q. 만약 평생 한가지 음식만 먹는다면,
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?

마라탕이요!
중국어를 정확하게
되는 능력!

떡볶이.
다양한 재료가
어우러져있는 떡볶이처럼
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
맺을 수 있는 능력

"한가지 음식만
먹어도 각기 다른
맛을 느끼기 위해
미각과 후각이 발달하게
될 것 같다."

